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부활 제 6 주일]

2009년 5월 16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이종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독서: 정종연 (베드로), 이민선 (데레사)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파나
다음주 복사: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요한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04
교무금: \$ 220
합 계: \$ 424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5월 22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5월 29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오늘의 묵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듯이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감정이 다른 인간입니다. 삶의 자세가 틀리고 자라난 배경 역시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는지요? 어떻게 평생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실망과 좌절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억울함의 고통을 참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분께서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답답함을 이해하셨고, 세상의 불공평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니다.

세상은 앞만 보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앞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눈뜨면 당연한 듯 새날을 맞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지냅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는지요? 사랑뿐입니다. 더불어 사는 이와 주고받는 애정이 없으면 세상은 금세 사막이 됩니다. 부활의 삶 역시 까마득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력을 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힘을 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만큼 삶이 달라지는 말씀입니다.

<제 1 독서> 사도행전 10,25-26.34-35.44-48 <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렸다.>

<제 2 독서> 요한 1서 4,7-10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 요한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31 봉헌: 414 성체: 176 파견: 134

살아있는 말씀

사랑의 특강

부산 카톨릭 대학 장재봉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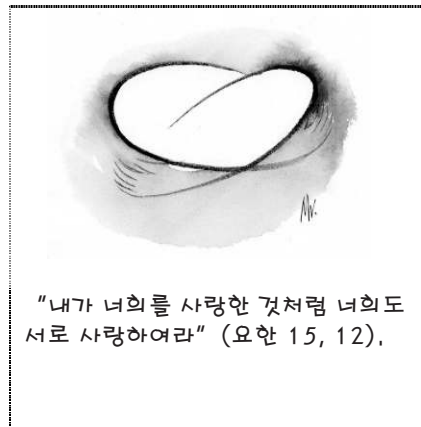
오늘 복음과 독서가 사랑에 집중된 것을 보며 ‘사랑의 특강’을 준비하신 주님의 심정을 엿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배우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우리,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배짱 탓에, 다시 특강을 마련하신 것이라 생각하니,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 한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주님의 이르심임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가르치며 사랑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일입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소중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늘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진실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필수요건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회, 500만 명의 교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 가정에서 주님을 모신 것이라 짐작됩니다. 100만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교우의 가정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 이웃들은 천국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며 살았다면, 세상은 이미 천국이어서 좋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거듭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일깨우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될 때에 한결 나아질 수 있는 까닭이 아닐까 짚어 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공부한 오늘, 우리는 결코 세상이 허접하고 시시하다는 막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느님께 너무나 귀한 곳인 까닭이고 세상의 허다한 문제들은 거의 모두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일이니까요. 세상이 훨씬 끔찍해지고 무시무시해지고 교활해졌다고 흉을 보는 일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사랑에 웅색하고 사랑에 소홀한 탓일 뿐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복덩어리라는 걸 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분께 받은 사랑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생명을 전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당신의 목숨을 내어 준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임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 덕분에 세상이 달라지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가득한 그분의 사랑을 어서 꺼내어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알려드립니다>

- ❖ 성당 여름 캠프가 6/20 (토)~6/21(일) 이틀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매디슨 북쪽의 Pine Lake United Methodist Camp 입니다 (<http://www.wisconsinumc.org/PineLake/index.html>). 작은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캠프 사이트입니다. 캠프 참가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디만 (캠프측과 연락중), 어른 \$50, 18세 이하 청소년 (초, 중, 고등학생)은 \$30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번주부터 참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선 신청만 하시고, 참가비는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 나누어 드린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목회장이나 행사 담당 사목위원 (강희만, 양지웅)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성당 공지사항에 답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사목회장: ikhong2350@yahoo.com) 되겠습니다. 미리 여름 일정을 확인하셔서 많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 ❖ 졸업시즌입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시게 된 교우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 <말씀의 초대>

코르넬리우스는 로마 군인으로 장교였다. 그는 신심 깊은 사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다. 천사는 환시를 통해 베드로를 만날 것을 알려 준다. 코르넬리우스는 베드로를 만나자 엎드려 절한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다(제1독서).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제2독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하려 애써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랑하려 노력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유판식 토마스>

